「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2021 가을): 1-20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5 No.3 (2021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5.3.1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양시 결혼이민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 성 훈**
유 수 동***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유의지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양호한 삶의 영위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응의 제 요인들인 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적응 요인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문화적응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야 상호작용을 통한 서로 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바탕이 된 공동체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사회자본, 상호작용, 고양시

Ⅰ. 서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명언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대에서는 인간관계를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가족 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나, 당초에는 그것의 중요성보다는 단순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1927년 Mayo의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 이후 고조되었으며,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고독사(孤獨死)와 집단 따

* 본 논문은 '전성훈. (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돌림, 관계중독에 따른 스토커(Stoker)와 데이트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성에 기반한 인간의 삶 속에서 사회라는 요소는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접촉과 건강한 관계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이러할진 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보다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과 고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은 그 시작과 과정이 어찌 되었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고, 개개인 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한국의 문화와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화적 변용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결과는 그들의 노력 정도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나,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갈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통계청(2021)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혼인건수는 239,159건이고, 이 중 국제결혼건수가 약 9.9%인 23,643건에 달한다. 국제결혼 건수 중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내국인 남편의 수는 2009년 25,142명(비중: 75.7%)에서 2019년 17,687명(비중: 74.8%)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중은 최근 10년 평균 72.7%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증가와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유수동,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언급한 결혼이민자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보건의료 약자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정책방향 또한 다문화주의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인 정책 추진(김정인, 2018; 전성훈·오은지, 2019), 동화를 바탕으로 한 세부사업(박진경, 2010; 이로미·장서영, 2010), 공급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정책 개발, 지역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반다문화주의와 다문화 혐오인식 증가(이용승, 2016)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동화보다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집단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박진경, 2010; 전성훈·오은지, 2019).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의 연구 또한 인간관계형성과 그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문화적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례연구(이혜경, 2005; 홍달아기·채옥희, 2006; 한건수, 2006; 정혜영·김진우, 2010; 허명준, 2020)와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검증연구(권복순, 2009; 박길순·이은아, 2020, 김병국, 2020), 문화적응척도 연구(김연수, 2011)가 대부분이며, 그들의 문화적응 전략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관계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내국인과 가족을 이루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양호한 삶의 영위를 위해 건강한 가족공동체 유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한국문화를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발

현되고,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지역사회 참여를 불러오며, 그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과 호혜적 상호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추론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 요인, 즉 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이 그들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인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실측 데이터는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통해 확보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다문화주의와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인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의지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이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多文化, multicultural)는 단일문화(單一文化)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후자가 특정 지역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주요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자는 둘 이상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사회 또는 지역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성훈·오은지, 2019). 다시 말해서 다문화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문화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 안에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를 다문화사회(多文化社會, multicultural society)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 하나의 현상이고 그에 다른 결과가 다문화사회라면, 다문화주의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문화 인정의 사고방식과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 즉,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의 논리적 근거와 바탕이 되는 이념적 도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전성훈·오은지, 2019).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며, 1960년대 소외된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는 시민권운동을 시작으로 태동되었고, 캐나다에서 최초로 공식적 정책으로 채택된 이후 유럽국가로 확대되어 왔다(오경석, 2007; 김상민 외, 2017).

다문화주의는 기존문화에 새로이 유입된 이민자 집단의 문화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었으며, 1970년대 이전 인종정책으로 사용되었던 동화주의(同化主義) 또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었다. 동화주의는 강한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칭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국민됨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장엽·정순관, 2014). 이에 반해 문화상대주의는 개별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상하관계, 즉 문화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극단적으로 활용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처럼 동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배척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광의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적 권리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정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의미한다(김유경 외, 2008).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정립을 진행한 Taylor와 Vertovec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소 상반된 정의를 하였는데, Taylor(1992)는 다문화주의를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소개하면서, 소수집단이 여타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Vertovec(1996)는 다문화주의를 '모자이크(mosaic)'와 '샐러드 그릇(salad bowl)'에 비유하면서, 주류든 비주류든 다양한 문화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신뢰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에 온정을 보내고 소수집단은 주류집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주류집단이 그것이 온정이던 그렇지 않던, 소수의 비주류집단과 함께 상호 존중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공유 및 공존하는 것이나, 나타나는 양상은 여러 국가마다 상이한 정치적·문화적·사회적인 요건 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언급한 다문화주의를 특정 국가 또는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사고방식 및 정책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문화적응은 개인 또는 집단의 차원에서 서로 상이한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인 상호접촉을 통해 발생되는 일련의 변화를 의미하며(Berry & Sam, 1996),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유발되는 문화적 변화와 해당 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Gibson, 2001). 다시 말해서, 문화적응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체계와 새로운 문화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연수, 2011). 이러한 문화적응은 다음과 같은 개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인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이한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Berry, 1995; Castro, 2003).

이러한 문화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은 크게 동화모델로도 알려진 단일차원모델(one-dimensional model)과 이중차원모델(bi-dimensional model), 그리고 다차원적모델(multi-dimensional mod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에서 다차원으로 발전해 왔다(Unger et al., 2007).

구체적으로 단일차원모델에서 문화적응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다른 문화적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이주자가 주류사회 문화에 적응할수록 기존의 문화를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Kang, 2006). 반면, 이주자가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또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중차원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이라 할 수 있다(Berry et al., 1989; Berry & Sam, 1996; Berry, 1997). 그리고 다차원적모델에서의 문화적응은 언어, 음식, 친구, 사회적 관계, 민족적 정체성 등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Berry et al., 1989; Suinn et al., 1992; Stephenson, 2000).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중차원모델인 Berry(1997)의 적응모형은 이주민 또는 소수집단이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이주수용국(또는 주류사회)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된다(Berry, 1997). 먼저, '통합(Integration)'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동화(Assimilation)'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낮으나,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발적 동화와 일방적 또는 강압적 동화로 구분된다. '분리(Separation)'는 주류사회에 참여 의지는 낮으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유형으로 표면적·내면적 갈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고, '주변화(Marginalization)'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주류사회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모두 낮거나, 없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Berry, 1997).

〈표 1〉 이주자 적응모형

구분		문화적응 (고유한 정체성 유지 여부)	
		여	부
구조적응 (주류사회와 적극적인 관계 유지 여부)	여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부	분리 (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자료: Berry(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이러한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자를 대상으로 적응수준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김연수, 2011). 특히, 이중차원모델에 근거를 둔 척도연구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을 영역별로 측정하기 위한 Berry et al.(1989), Barry(2001) 등의 문화적응척도와 주류사회의 문화적응과 모국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독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시도한 Cuellar et al.(1995), Stephenson(2000) 등의 문화적응척도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민족적 정체성, 언어 선호, 조직 참여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 음식,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 민족적 정체성, 인종적 교류, 문화적 행위, 선호하는 언어 등을 채택하여 활용되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문화적응척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연수(2011)는 이중차원모델을 근거로 하여 한국문화적응척도와 모국문화유지척도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어 이해 및 구사,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대중매체선호, 정체성, 음식선호 등으로 설정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식선호, 모국인과 교류, 모국어 사용, 정체성, 전통유지, 대중매체선호 등으로 세분화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적응이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수용국의 주류사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때, 이들의 문화적응 행위에 따른 결과물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사회자본 형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977년 경제학자인 Loury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상호연결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1] OECD(2001)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활용되는 학문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사회학 관점에서는 사회자본을 사회관계망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망이 사회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정보와 자원을 제공·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Coleman, 1988; Burt, 2001; Lin: 2001; 전성훈, 2010). 경제학에서는 사회자본을 특정 사회의 호혜관계를 작동시키는 제도와 규범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회자본은 여러 제도들을 정착시키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마득용, 2009). 그리고 정치학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칭하며, 이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여긴다(Putnam, 1993). 이처럼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의 설정은 학문영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de Souza Briggs, 1997; Lappe & Du Bois, 1997; Leana & Van Vuren, 1999).

한편, 사회자본은 전통적인 경제자본, 지식 또는 기술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나, 소유자에게 일정한 혜택 또는 보상이 제공되는 점에서는 여타의 자본과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이며(Lin, 2001), 발생되는 이익이 공유될 뿐만 아니라,[2] 행위 당사자들 간의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 positive sum)관계로 나타나지만(Adler & Kwon, 2000), 사람들 또는 행위자들의 부단한 노력, 즉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각종 연구를 통해 경제발전과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도움이 되며(Putnam, 1993), 주민들 간의 규범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조장하여 정부성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Putnam, 1995), 고효율 정치사회 구현과 부정부패의 효과적 감시, 공공부

---

1) Loury(1977)는 신고전주의적 측면에서 인종별 소득격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와 미국의 사회학자 Coleman에 의해 정교한 이론화가 이루어졌다(유석춘 외, 2003).

2) 이익의 공유는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Coleman(1988)이 주장한 바데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익이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해당 이익이 배분되는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Putnam, 1993).

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관계 형성(주성수, 1999)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사회자본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에서의 긍정적인 행위들을 촉진한다는 것이다(유수동·전성훈·사용진, 2019).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다시 말하면 결혼이민자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발현되는 사회자본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을 결혼이민자라 한다면, 이들은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양호한 삶의 상태를 영위하고, 온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로 구체화되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구조적 적응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 연구모형과 설문내용

1. 변수선정 및 조작적 정의

앞서 살펴본 다문화주의와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독립변수인 결혼이민자의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rry et al.(1989), Cuellar et al.(1995), Stephenson(2000), Barry(2001), 김연수(2011) 등이 제시한 세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사회적응'과 '언어적응', '구조적응'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된 문화적응 모델 중 이중차원모델을 활용하되, 이주수용국인 대한민국의 주류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측면(한국문화 수용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문항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식주, 자녀 양육, 가사분담, 부모 부양, 명절 및 가족의례, 종교생활 등을 '사회적응' 요인으로 범주화하였고, '언어적응'은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역량수준으로, '구조적응'은 내국인과의 교류, 주류사회 참여, 주류사회 신뢰 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leman(1988), Putnam(1993, 1995) 등이 활용하였던,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를 선정하였고, 연구의 주요대상이 이주민인 결혼이민자라는 점과 '신뢰'요인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공공재라는 특성을 반영하여(이재열, 1998), '공적신뢰'와 '사적'신뢰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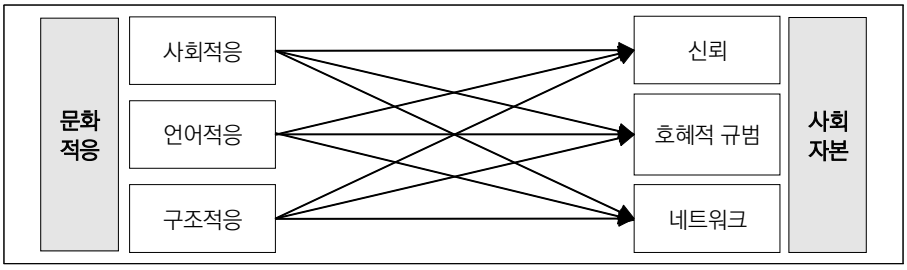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신뢰' 요인은 대한민국과 고양시, 지원기관, 내국인, 이웃 등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믿음 또는 신뢰로 한정하여 세분화하였고, '호혜적 규범'은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호혜성이 바탕이 된 상호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인식, 질서의식, 시민의식 등을 측정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인 '네트워크'는 결혼이

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구조화되어 형성되고 있는 관계망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2.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중차원모델을 근간으로 이주수용국의 문화적응을 위한 세부요인(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이 사회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에 따라서 문화적응 수준과 사회자본의 구성에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3] 종합적으로 수용국의 새로운 환경 및 문화 속에서 양호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욕구가 주류사회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유발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사회자본이 형성 및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더불어 분석모형을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문화적응의 세부요인인 '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이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사회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 1: 사회적응은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응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응은 호혜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응은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언어적응은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언어적응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언어적응은 호혜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설문응답자의 대다수가 여성(97.5%)임을 고려하여, 성별은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가설 2-3: 언어적응은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구조적응은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구조적응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구조적응은 호혜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구조적응은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 적응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전제는 이주민이 결혼이민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논의를 토대로 한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국제결혼은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나 결혼중개업체 활용, 자유로운 연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전성훈·오은지, 2019), 만남 방법은 다양하나, 당사자들 모두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인 스스로 이주수용국의 문화적 환경에의 노출 및 접촉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적 체계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행태를 보일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뢰와 호혜성이 바탕이 된 협력적 상호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추정한다.

〈표 2〉 분석요인 및 설문내용

분석요인				측정항목	출처	척도
독립변수	문화적응요인	사회적응		의식주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Berry et al.(1989) Cuellar et al.(1995) Stephenson(2000) Barry(2001) 김연수(2011)	서열 (5점)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가사분담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부모 부양 방식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명절 및 가족의례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종교생활에 대한 문화적 차이 강도		
		언어적응		한국어 말하기 능력 수준		
				한국어 듣기(TV, 라디오, 대화 등) 능력 수준		
				한국어 읽기(책, 신문 등) 능력 수준		
				한국어 쓰기(메모, 편지, 민원 등) 능력 수준		
		구조적응		거주지 주변 내국인들과의 관계·협력 수준		
				거주지의 주류사회(부녀회, 반상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등)에 참여수준		
				거주지의 주류사회(부녀회, 반상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등)에 대한 신뢰수준		
종속변수	사회자본요인	신뢰	공적신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수준	Coleman(1988) Putnam(1993) 박희봉(2002) 전성훈(2010)	서열 (5점)
				고양시에 대한 신뢰수준		
				고양시 관내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사적신뢰	거주지 주변 내국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늦은 밤 외출에 대한 두려움 수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의 존재 수준		
		호혜적규범		거주 동네에 대한 공동체 인식 수준		
				동네 사람들의 질서의식 수준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도움제공 수준		
			보답의 여부없이 도움제공 수준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 수준		
		네트워크	이웃들과의 적극적인 접촉 수준		
			동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 수준		
			동네 또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준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주요 조사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이며,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6일부터 동년 9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300부를 배포하여 262부(87.3%)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훼손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3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이 230명(97.5%), '남성' 6명(2.5%)이 참여하였고, 거주지별로 '덕양구' 118명(50.0%), '일산동구' 53명(22.5%), '일산서구' 65명(27.5%)이 설문에 응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미만' 52명(22.0%), '30~40대 미만' 100명(42.4%), '40~50대 미만' 46명(19.5%), '50대 이상' 33명(14.0%)으로 나타났고, 현재혼인상태로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있음'이 225명(95.3%), '배우자 사망' 5명(2.1%), '이혼 또는 별거' 6명(2.5%)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있는 모든 응답자는 동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213명(90.3%)이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23명(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① 여 성	230	97.5
	② 남 성	6	2.5
	무응답	0	0.0
	합 계	236	100.0
거주지 (일반구)	① 덕양구	118	50.0
	② 일산동구	53	22.5
	③ 일산서구	65	27.5
	무응답	0	0.0
	합 계	236	100.0
연령	① 20~30대 미만	52	22.0
	② 30~40대 미만	100	42.4
	③ 40~50대 미만	46	19.5
	④ 50대 이상	33	14.0

	무응답	5	2.1
	합 계	236	100.0
현재 혼인 상태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225	95.3
	② 배우자 사망	5	2.1
	③ 이혼 또는 별거	6	2.5
	무응답	0	0.0
	합 계	236	100.0
배우자 동거 여부	① 예	225	95.3
	② 아니오(주말부부 등)	11	4.7
	무응답	0	0.0
	합 계	236	100.0
동거 자녀 여부	① 있다	213	90.3
	② 없다	23	9.7
	무응답	0	0.0
	합 계	236	100.0

Ⅳ. 설문결과 및 분석내용

1.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

고양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분석요인의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값(Cronbch's alpha)을 활용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를 진행하였다. Van De Ven & Ferry(1980)에 따르면, 일반적인 탐색적 연구분야에서 크론바하 알파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판단함을 고려하여 일관성을 저해하는 설문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더불어 문화적응요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해야 하는 바, 분석요인별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들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방법과 베리맥스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로 활용한 문화적응요인에 대한 세부분석요인별 알파값은 '사회적응' 0.877, '언어적응' 0.926, 그리고 '구조적응' 0.892로 모든 요인의 세부측정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응(1요인)', '언어적응(2요인)', '구조적응(3요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Kaiser-Meyer-Olkin (KMO) 값이 0.79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Battlett 구형검정치(sphericity)는 1682.129, 유의확률 0.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4〉 문화적응요인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분석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치 (아이겐값)	분산 (%)	Alpha
독립변수	문화적응요인	사회적응	부모 부양 방식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868	4.217	32.4	.877
			명절 및 가족 의례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849			
			가사분담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815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800			
			종교생활에 대한 문화적 차이 강도	.709			
			의식주에 대한 문화적 수용 수준	.696			
		언어적응	한국어 듣기(TV, 라디오, 대화 등) 능력 수준	.919	3.006	23.1	.926
			한국어 말하기 능력 수준	.912			
			한국어 읽기(책, 신문 등) 능력 수준	.896			
			한국어 쓰기(메모, 편지, 민원 등) 능력 수준	.854			
		구조적응	거주지의 주류사회(부녀회, 반상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등)에 참여수준	.930	2.366	18.2	.892
			거주지의 주류사회(부녀회, 반상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등)에 대한 신뢰수준	.911			
			거주지 주변 내국인들과의 관계·협력 수준	.896			
Kaiser-Meyer-Olkin					.790		
Bartlett의 구형검정치					1682.129		
유의확률					.000***		

**p〈.01, ***p〈.001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활용한 지역 내 사회자본의 세부요인별 알파값은 각각 '공적신뢰' 0.890, '호혜적 규범' 0.802, 그리고 '네트워크' 0.769로 세부측정항목간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호혜적 규범(1요인)', '공적신뢰(2요인)', '네트워크(3요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요인의 세부측정항목들 중 '사적신뢰'의 3개 문항과 '호혜적 규범'의 1개 문항은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더불어 Kaiser-Meyer-Olkin (KMO) 값이 0.807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Battlett 구형검정치(sphericity)는 1197.519, 유의확률 0.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자본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분석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치 (아이겐값)	분산 (%)	Alpha
종속변수	사회자본요인	신뢰	공적신뢰	고양시에 대한 신뢰수준	.912	1.531	13.9	.890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수준	.903			
				고양시 관내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801			
			사적신뢰	거주지 주변 내국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제외	-	-	.650
				늦은 밤 외출에 대한 두려움 수준	제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의 존재 수준	제외			
		호혜적 규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도움제공 수준	.781	4.560	41.4	.802
			보답의 여부없이 도움제공 수준	.776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	.645			
			동네 사람들의 질서의식 수준	.636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 수준	.598			
			거주 동네에 대한 공동체 인식 수준	제외			
		네트워크	동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 수준	.816	1.359	12.3	.769
			동네 또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준	.783			
			이웃들과의 적극적인 접촉 수준	.775			
Kaiser-Meyer-Olkin					.807		
Bartlett의 구형검정치					1197.519		
유의확률					.000***		

**p〈.01, ***p〈.001

2. 사회자본에 대한 문화적응요인의 회귀분석결과

여기서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요인이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확인하였던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문화적응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종속변수로,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가운데, 전체 설명력이 19.0%(R^2=.190, F=10.607)로 나타났으며, '호혜적 규범'의 경우에는 '사회적응'과 '연령DUM'변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전체 설명력이 9.9%(R^2=.099, F=4.982)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에는 '구조적응'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전체 설명력이 49.8%(R^2=.498, F=44.947)로 '문화적응'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의 모든 세부변수별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각 독립변수들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구조적응' 요인이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두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뢰' 요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신뢰' 요인에 대한 '연령DUM'변수를 제외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 부호가 정(+)의 방향으로 '문화적응' 요인이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대하여 정(+)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확률과 F값의 유의확률이 모두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제변수인 '연령DUM' 요인이 유일하게 '신뢰'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수 부호가 음(-)의 방향으로 40대 미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신뢰' 요인에 부(-)의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6〉 사회자본에 대한 문화적응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사회자본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β	t	공차 한계	β	t	공차 한계	β	t	공차 한계
문화적응 요인	사회적응	.154*	2.290	.991	.087	1.225	.991	-.049	-.927	.991
	언어적응	.296***	4.382	.979	.193**	2.708	.979	-.026	-.494	.979
	구조적응	.232***	3.470	.998	.219**	3.105	.998	.700***	13.282	.998
통제변수	연령DUM	-.194**	-2.839	.971	.053	.738	.971	.052	.978	.971
R^2		.190			.099			.498		
F		10.607***			4.982**			44.947***		

*p〈.05, **p〈.01, ***p〈.001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적응'의 세부요인 모두 사회자본 형성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언급한 가설(1-1, 2-1, 2-2, 3-1, 3-2, 3-3)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민자가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명절 및 가족의례, 의식주 등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어 활용능력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작용될 때, 사회자본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유지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Coleman(1988)과 Burt(2001), 마득용(2009)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 형성정도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그에 따른 자원 및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양호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관계의 조성을 통한 결속력 강화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문화적응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야 상호작용을 통한 서로 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바탕이 된 공동체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바탕이 되고, 한국문화 수용과 한국어 활용능력의 제고라는 수단을 통해 온전한 정착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응 요인이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의 요약과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의 제 요인들인 '사회적응', '언어적응', '구조적응'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구조적응'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 지원정책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배우자,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체험 등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비롯한 내국인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사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물론, 다문화 축제와 같이 내국인과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업이 존재하나, 이러한 대규모 단발성 사업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동 또는 작은 마을 단위로 소규모이면서 잦은 빈도로 진행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연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결혼이민자들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토록 동기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의지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최 일선의 동기제공자는 가족을 비롯한 내국인 친구와 같은 지인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이웃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동기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친근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가족공동체임을 고려하여 친지를 비롯한 내국인 가족은 결혼이민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지하며,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마지막 동기제공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은 건강한 다문화가족공동체가 형성·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중앙정부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이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대응책 중의 하나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사회에 대한 적응전략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채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의 사회통합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민자 또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쌍방향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통합(integration)이라 할 때(유네스코, 1980; 박진경, 2010),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의 문화적응 수준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략 또는 수단을 고려한 정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은 수혜자의 의지 및 욕구와 공급자의 수단 및 방법 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만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한 점

과 문화적응요인에서 한국문화수용 수준만으로 한정하여 모국문화유지를 비롯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남는다. 이후 관련 연구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김병국. (2020).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진지한 연가와 정체성을 활용하여. 「관광진흥연구」, 8(3): 145-159.

김상민 외. (2017).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율 저감 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 개발연구」. 「여성연구」, 81(2): 103-146.

김유경 외.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득용. (2009). 사회자본,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국가차원에서의 다국 비교 연구. 「한국정치연구」, 18(1): 169-193.

박길순·이은아.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인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595-605.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무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박희봉.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유석춘 외.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유수동. (2021).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새로운 도전. 「월간 공공정책」, 188: 64-66.

유수동·전성훈·사용진. (2019). 조직 내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1): 161-189.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 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이용승. (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 1-26.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65-93.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전성훈. (2010).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평구 15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27-56.

전성훈·오은지. (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 고양시정연구원.

정장엽·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정혜영·김진우. (2010).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허명준. (202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생활 적응 사례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5(1): 107-115.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Adler, P. S., & Kwon, S.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ds.),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kh-Heinemann.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tion Health, 3(4): 193-197.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Veroff, J. B., & Goldberger, N. R.(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 New York: University Press.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Berry, J. W., & Sam, D. L. (1996).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Berry, J. W., Seogall, M. A., & Kagitubasi, C.(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ocial Behaviors and Application. Boston: Allyn & Bacon.

Berry, J. W., Kim, U., Power, S., & Young,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185-206.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Burt, R. S. (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In Lin, N., Cook, K., & Burt, R. S.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Connecticut·London: Greenwood Press.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7-121.

Cuellar, I., Armold, B., & Maldonado, R.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Ⅱ: A Ver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7(3): 275-304.

de Souza, B. X. (1997). Social Capital and the Cities: Advance to Change Agents. National Civic Review, 86(2): 111-117.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Gibson, M. A.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19-23.

Im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ng, S. (2006).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Scale Formats, and Language Competence: Their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6): 669-693.

Lappe, F. M., & Du Bois, P. M. (1997). Building Social Capital Without Looking Backward. National Civic Review, 86(2): 119-128.

Leana, C. R., & Van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ury, G. (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 in Wallace, P. A., & Lemund, A. (eds.)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Lexingtion: Lexingtom Books.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Stephenson, M.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ephenson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SMAS). Psychological Assessment, 12(1): 77-88.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41-1046.

Taylor, C. (1992). Multicultru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n Essay. Princeton University Press.

Unger, J. B., Ritt-Olson, A., Wagner, K., Soto, D., & Baezconde-Garbanati, L. (2007). A Comparison of Acculturation Measures among Hispanic/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555-565.

Van De Ven, A. H., & Ferry, D. L.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Vertovec, S. (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49-69.

전성훈(全成勳):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주민자치, 지방재정이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공공봉사동기, 조직 내 사회자본과 직무만족(2021)",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8)",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mpjun97@gyri.re.kr).

유수동(柳水東):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지방행정, 정책집행 등이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사회혁신을 위한 리빙랩 활용에 관한 연구(202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1)", "정책연구용역 계약방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21)" 등이 있다(mine15@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1. 9. 16 / 심사개시일: 2021. 9. 23 / 심사완료일: 2021. 10. 5〉

Abstract

The Impact of Cultural Adapta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s on the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 Goyang City

Jeon, Sunghun

Yoo, Soodong

This study assumes that marriage immigrants will have a strong intention to build a smooth relationship with community members for a good life. Under this premise,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ultural adapta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s on the social capita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social adaptation', 'language adaptation', and 'structural adaptation' have been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capital(trust, reciprocal norm, network). Second, among the cultural adaptation factors, 'structural adaptation'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social capital. Fi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of cultural adaptation was the network among the factors constituting social capital. Considering that the core of social capital is the network, communities based on trust and reciprocity can be creat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Cultural adaptation, Social Capital, Interaction, Goyang City